

# LG디스플레이, OLED 투자 앞당겨

## OLED TV 기술적 완성도 고려 ... 차별화제품 비중 60%까지 높여

LG디스플레이가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 패널 투자를 앞당긴다.

LG디스플레이의 정호영 CFO 부사장은 1월27일 영업실적 설명회에서 “2012년 내에 OLED 투자에 대한 집행 시기 및 방법 등 투자전략을 결정해야 한다”며 “애초 2012년 말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현재 OLED TV의 기술적 완성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 시기를 1-3분기 가량 앞당겨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또 “2012년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3D 패널이나 스마트북 패널 등 차별화제품 비중을 면적 기준 현재 30%에서 2012년 말까지 60%로 끌어올릴 것”이라며 “운영자금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아울러 “패널기업들의 투자 축소가 이어지는 만큼 2012년 공급 증가율이 6-7%로 둔화하는 가운데 패널 가격의 추가하락 가능성은 희박하다”며 “2012년에는 시장이 확실히 개선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 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30>